

文 사전투표 독려 표단속... 安 영호남 오가며 종횡유세

文·安 막판 표심잡기 부심

文, 공격포문 安서 洪으로
가짜뉴스 감시체제 본격 가동

안철수 전복 찾아 공약 제시

文·洪 극단정치 싸잡아 비판

아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종반전에 접어든 3일 조기대선 전략을 가다듬었다.

문 후보는 선두를 굳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고 안 후보는 막판 역전을 위해 국토 중·남부를 종횡하는 이른바 ‘지그재그’ 유세를 펼치기로 했다.

◇문재인=문 후보 측은 ‘1강 굳히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안 후보에게 겨냥된 공격의 ‘갈갈’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게로 옮겼다. 홍 후보가 보수표 결집을 통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박광온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서울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홍 후보와 바른정당 탈당파의 정치 파괴 행위는 정치 혐오를 부추겨 민주주의와 정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홍 후보와 탈당파를 싸잡아 비난했다. 문 후보 측은 지난 1~2일 양일간 낸 안 후보 비판 논평은 3건에 불과했지만, 홍 후보에 대한 내용은 7건에 달했다.

또 문 후보 측은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게 2만표(0.6%) 차이로 석패한 부분을 지적하며 진보진영 표 단속에 나섰다.

김민석 선대위 종합상황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선거대책위원회가 3일 오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의 두 자릿수대 지지율에 대해 “민주당에 안정적인 지지를 주시시오라는 호소가 정의당과 심 후보에게는 서운할 수 있지만 저희로서는 절박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구성된 2만6000여명의 국민특보단을 가동, 24시간 ‘가짜뉴스’ 감시체제에 돌입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뒤 고향인 경남을 찾아 득표 활동을 벌였다.

◇안철수=안 후보는 이날부터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6일까지 3박4일 동안 호남과 영남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국토 중·남부를 종횡하는 유세를 하며 막판 ‘대역전 행보’에 나섰다. 남은 옛세 동안 영·호남의 동반 상승을 견인, ‘실버크로스’를 정당하는 홍 후보의 추격을 뿌리치고 문 후보를 따라잡아 ‘골드크로스’를 이뤄내겠다는 전략이다.

안 후보는 일단 첫 방문지로 아권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을 선택했다. 우선 전북 익산을 찾아 유세를 펼치면서 ▲백년 먹거리 첨단농식품 산업 육성 ▲백제역사문화

벨트 조성 및 전통문화 특화도시 조성 ▲글로벌 탄소 밸리 조성 등 ‘전북 미래 프로젝트’ 공약을 제시했다. 이어 전북 김제의 ‘새만금 33센타’를 찾아 새만금 개발 공약을 제안한 다음 남원에서 유세를 했다. 안 후보는 이후 경북 구미로 넘어가 다음날에는 영남지역에서 유세를 이어가기로 했다.

안 후보 측은 최근 바른정당 의원 집단 탈당 사태와 관련, 경쟁자인 문 후보와 홍 후보를 양극단, 기득권 정치세력으로 치부하면서 오히려 합리적 중도 개혁을 바라는 표심을 안 후보에게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 후보는 남은 기간 양당체제의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고 미래와 통합으로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메시지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전략본부장인 김성식 의원은 “국민이 이제 마음을 정리해가는 한 주인데 합리적인 중도·개혁, 미래·통합 메시지를 통해 ‘안철수와 미래의 길로 가자’는 절박한 호소를 할 것”이라며 “유세도 조금 더 집중성을 높여 유세뿐 아니라 직접 스킨십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광주시당 국민캠프 선거대책위원회가 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정권교체 위해 압도적 지지 보내달라” “패거리 정치 끊을 현명한 선택해달라”

민주당·국민의당 광주·전남 선대위 막판 지지호소

오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6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광주·전남 선거대책위원회가 3일 선거 막판 득표 전략을 발표하며 지지 호소에 나섰다.

민주당 광주전남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심판받고 사라져야 할 세력들이 국민을 현혹해 정권연장을 노리고 있다”며 “문재인 후보로의 정권교체를 위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광주시당 당사에서 열린 시·도 선대위 공동 기자회견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단호한 심판을 내려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농단 세력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부패한 이들의 정권연장을 막기 위해 시·도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호남의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상실감을 드렸던 그 날을 잊지 않고 있다”며 “더 강해졌고 다 갠 절해진 문 후보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줘 압도적 지지로 정권교체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 국민캠프 선거대책위원회는 3일 바른정당 집단탈당으로 진보와 보수 대결로 치닫고 있는 선거 분위기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립과 반목의 구태연한 정치를 깨려면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진보와 보수의 정치권이

모두 국가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은 “진보는 보수를 꺾을 수 없다고 하고, 보수는 진보를 추방한다고 하는데 과거의 낡은 이념대립 정치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바른정당의 집단탈당은 논리도 명분도 없는 행위이며 우리나라를 정의가 없는 나라, 패거리 정치의 나라로 되돌리고 있다”며 “바른정당의 집단탈당은 중도·화합을 강조하는 안철수 후보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통합정부는 결국 민주당끼리 해먹겠다는 것이다”며 “문 후보가 당선되면 호남소외·호남몰매는 반복될 것이므로 다시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행기자 galee@

문재인 “여름휴가 12일... 연차휴가 20일로 확대 검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3일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향후 여름휴가 12일 이상을 의무화하고 기본 연차유급휴가일 수를 20일로 늘리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자의 총권과 안전을 위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노동자들은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30시간, 독일보다 740시간 더 일한 2113시간을 일했지만 법정 유급 휴가 15일 중 6일만 쉬는

등 가장 조금 쉬었다”며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휴가 5~6일을 모두 쓰면 20주원에 이르는 경제파급 효과가 생기고 고용창출 효과도 38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문 후보 선대위 유효중 공동정책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청년정책을 발표하며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청년 정치참여 기회를 더 빨리 보장하겠다. 대학 입학금이 없애고, 등록금은 진짜 반값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이어 “청년 자기결정권을 높여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의원들의 피선거권도 선거연령 18

세에 맞게 낮춰서 미래세대의 정치 진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는 “병사 급여를 2020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까지 인상하겠다.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 생활관에 수신평형 공동 주택을 추가 설치하고, 복무중 부상·질병은 제대 뒤까지 평생 지원되게 하겠다. 군 인권 전담 보호관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3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불교문화 엑스포 유치·사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3일 불기 2561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세계 불교문화 엑스포(EXPO) 유치, 우리 불교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 내고 해외 반출 문화유산의 반환 추진과 불교문화재 유치·보수 예산 증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안심(安心) 불심(佛心)’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우선 임기 내 세계불교문화 엑스포 유치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템플스테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했다. 또 통도사·법주사·선암사·대

흥사·부석사 등 주요 사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하고 워레신도시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와 세종시 한국불교문화홍보체험관 건립을 위한 예산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도굴당해 전 세계로 흩어진 불교문화재의 환수를 위해 우선 정부·불교계·학계가 협의기구를 구성해 외세에 의해 반출된 문화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경복궁과 덕수궁 등 고궁박물관과 각 국립·지역 박물관, 방지진 사지(寺址) 등에 방지진 불교문화재의 경우 전국 주요 사찰에 성보박물관

관으로 보내 관리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문화재 유치·보수 예산도 증액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에 사찰 문화재 전문가의 분야별 인원을 늘리고,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보호를 위한 관리인원 파견 지원·유지·관리비용도 증액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대장경 현대화 작업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단순히 한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으로 번역해 세계에 소개하겠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일보 65 광주일보 연중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분받아요!

빈병기보증금 상담전화 1522-0082
www.kora.or.kr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병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병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병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대상용량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2017. 1. 1. 부터 출고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비고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유예)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마-라이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대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청주 등

면적 150% 확대 색상 변경

!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환경부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보해양조